

## ◇학회보고

## 제4회 한일과학사세미나를 다녀와서

이 면 우

경동고

배낭 하나 둘러메고 비행기를 탄 적은 두어번 있었다. 그러나 양복을 입고 학자(?)인 체하면서 비행을 타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설레었고, 또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특히 야부우치(藪内 清) 선생님을 비롯해 유명한 일본의 과학사가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나에게는 다행히 학회기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대신 시험감독을 하신 동료 선생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또한 이런 멋진 여행과 공부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한국과학사학회 여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이 글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기행문에 불과함을 밝힌다.

91년 한글날 아침 나는 서울을 출발했다. 맑았던 서울 날씨와 달리 오사카 공항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그런데 이 한글날이란 날을 기억할 만한 일이 오사카 공항에서 일어났다. 평상시 한글전용(?)을 주장하신 송상용 선생님이 오사카 공항 입국시, 입국 카드에 한자식 이름 표기를 거부하고 영어로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끝까지 한자로 성명을 표기하라는 일본 출입국 직원과 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송선생의 설전(물론 영어로)은 입국수속을 무려 30분이나 지연시켰다. 선생님의 주장은 영어는 국제어이므로 사용하지만 한자는 국제어가 아니므로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요지였다. 이 에피소드에서 느낀 점은, 일본은 한자를 자기네 글처럼 생각하고 있으며(실제로 거의 모든 말과 글에 한자를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자기네 틀에 맞도록 한자로 표기하라는 강제성에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공항을 빠져나와 공항버스를 타고 교토로 향했다. 마침 교토대학에 교환교수로 와 계신 박성래 선생님과 오진곤 선생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셨다. 버스로 약 한시간 걸려 교토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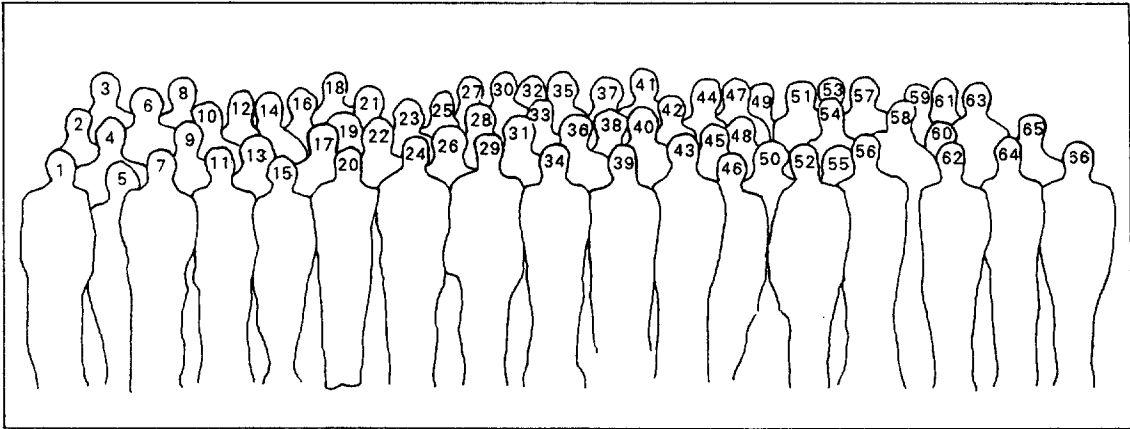
교토에 도착해서 우리 일행은 세 팀으로 나뉘었다. 연로하신 교수님들 중심으로 한 팀이 구성되었고, 비교적 소장학자들로 구성된 한 팀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팀을 짰다. 나는 젊은 대학원생들과 같은 팀이 되게끔 자청했다. 물론 잠자리는 형편없지만 역시 여행은 젊은이와 함께 하는 것이 좋고, 또 잠 안오는 이국 땅에서 술이라도 한잔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새벽 2시까지 비행기에서 산 양주를 마셨는데도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이국 땅이기 때문이리라. 내가 잔 숙소는 '타니 하우스'라는 싸구려 여인숙으로 주로 배낭족만 받는 곳이었다. 박성래 선생님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았다고 욕심장이처럼 생긴 주인 아주머니는 강조했다. 묵묵히 청소만 하면서 우리말로 "천만에요"를 연발하는 주인 아저씨. 좁은 마당을 파서 그곳에 비단잉어를 기르는 일본식 정원. 그러나 우리 물가에 비교하면 결코 짙은 집은 아니었다. 하루에 한사람당 2000엔(약 12000원 정도)이니까.

세수를 하면서 전날 교토대 불교철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이제호씨와의 대화를 생각했다. 주된 요지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였는데, 우리들이 느끼는 일본사람과 5년 이상 일본에 산 이제호씨가 느



第4回 韓日科學史세미나 1991. 10. 同志社大學 京都産業大學



1 岡 2 石 3 金 4 朴 5 山 6 村 7 取 8 橋 9 金 10 李 11 俊 12 中 13 金 14 芝 15 李 16 道 17 李 18 趙 19 伊 20 古 21 金 22 申 23 俞 24 有 25 金 26 李 27 吉 28 全 29 田 30 朴 31 金 32 下 33 山 34 大 35 金 36 川 37 小 38 野 39 金 40 藤 41 山 42 宋 43 任 44 高 45 村 46 李 47 丁 48 大 49 室 50 社 51 中 52 林 53 藤 54 藤 55 興 56 佐 57 金 58 李 59 李 60 三 61 李 62 金 63 宮 64 又 65 矢  
崎山 下上出本 藤井島 原 東川 坂 田 中 子平田橋 藤林內 井本 橋上 網買 山 本原 藤 宅 勲 野  
精 光 鐘 愛 瑞 祥 敬 基 明 品 康 秀 文 榮 貞 俊 觀 根 東 崇 明 在 相 星 和 慶 由 永 秀 濟 容 康 德 相 敬 哲 嘉 成 仁 照 石 陸 幸 々 鎮 健 必 勉 宏 根 一 聖 道  
郎 洋 正 玄 子 一 伸 造 協 珍 男 弘 人 基 茂 煥 天 俊 美 太 一 培 謙 老 子 治 忠 運 談 米 務 夫 兒 紀 植 城 一 滴 雲 生 子 腐 淳 郎 實 圭 永 功 子 然 茂 夫 夫 加 坤 一 從 烈 兩 可 應 培 彦 亮 雄  
郎 郎 郎 夫 九

긴 일본인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비교했다. 우리 민족은 본심(ほんね)과 행동의 일치를 가장 중요시 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데 반해, 일본인들은 철저히 숨기고 행동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런 문화 차이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첫날 세미나는 도시샤(同志社) 대학에서 열렸다. 그런데 매달 10일을 체육의 날이라 하여 일본에서는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도시 전체가 조용했다. 비교적 일찍 대학에 도착했다. 자그마한 교문이 인상적이었다. 시간이 좀 남기에 대학 앞에 있는 고쇼(御所, 옛 궁궐)를 걸만 구경했다. 안을 보려면 미리 안내소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시 대학으로 들어가니 일본에선 보기 드문 십자가도 있었고 기독교적인 풍경이 눈에 띄었다. 등록을 하고 나니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명찰을 보니 평소 뵙고 싶었던 야부우치 선생님이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용기를 내어, 짧은 일어 실력으로 인사를 드렸다. 좀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이라면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결국 기념사진 한장 찍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말이다. 세미나 장소가 채플이기 때문에 자리가 상당히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의 고령인 야부우치 선생은 세미나하는 동안 몸하나 흐트러뜨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점심은 일본 특유의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미끼하면서 달착지근하고, 오색가지 색으로 장식한 것이 우리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동석한 한 일본인이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반갑다는 인사를 했다. 깜짝 놀란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그는 웃으면서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현재 토야마(富山)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후지모토(藤本) 교수였다. 후지모토 교수와 나눈 대화중에 한가지 걸리는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현재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과 5군데 학과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친북한계열은 '조선어과'로 친한국계열은 '한국어과'로 보통 부른다고 한다. 현재 조선어과는 4곳이고, 한 군데만 한국어과로 부른다.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예전에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서 한국어 강의의 명칭을 정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한글'과 '안녕하세요'로 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날 중국과학사 전공인 사카데(坂出) 교수는 "한일 양국의 과학기술 전통과 전개"라는 기초 발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의 과학기술사자들은 그동안 중국에서 직접 전래받은 과학기술만을 중시했고, 한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과소평가해 왔다. 그러나 우리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과학기술에서 받은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서기」 등 구체적인 역사 문헌을 들면서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좋은 파트너로서 과학기술의 교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한일과학사세미나의 의의를 그대로 보여줬다.

기초 발제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을 보는 관점", "여말선초 청동활자의 주조과정에 관한 실험연구", "일본 고지도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 "조선시대 왕실의료의 사회통제적 기능", "「할산서」의 출판", "세종의 천문학 업적", "양부일구", "시부카와에서 이규경으로" 등 9편의 세부적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언어는 일어와 한국어 및 영어가 모두 가능했었는데, 주로 일어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시 국력은 강해야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힘이 있다면 일본사람들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울텐데 말이다.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일본인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혀 몰랐다. 오후 5시 30분이 조금 지나 논문 발표가 끝났다. 예정된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시간을 꼭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이어 일본과학사학회 주최 공식 만찬이 중국집 로쿠메이한텐(鹿鳴春飯店)에서 있었다. 요리는 겨우 4가지뿐.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적은 가짓수였다. 술은 기린 맥주와 중국술인 소흥주(紹興酒)였는데, 중국 술이 대개 그렇듯이 독하고 특이한 향이 있었으나 나는 별 맛을 느끼지 못했다. 이 모임

에서 나는 상당한 식사 문화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우선 그들은 절대로 잔을 돌리지 않았다. 또 잔이 비기 전에 항상 다시 채웠다.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무릎을 꿇고 대접하는 것이 젊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이한 것은 술을 거부하면 절대로 다시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들 표현대로 와리칸(割勘, 각자 부담)이었다. 이날 회식도 역시 참석한 일본사람 수대로 100엔의 단위까지 정확히 나누어 걸었다. 그러나 음식의 가지 수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중간에 아무 소리없이 조용히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되니 회식이 끝날 무렵에는 일본사람은 몇몇에 불과하고 나머지 좌석은 우리 참석자들로 채워졌다. 철저한 개인주의적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일행 중 몇몇은 역시 한국적인 습관 탓인지 한 차례의 회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일본 학자들 중에서도 한국통이라 자처하는 학자들은 결국 우리들의 2차 제의에 꺾히 웅했다. 일본인 학자 세사람(후지모토, 사카데, 야노)과 송상용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 그리고 재일동포인 김광정 교장선생님과 나는 다행히 2차를 즐길 수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영어, 일어, 한국어 그것도 안되면 필담으로 했다.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술이 취하니 말도 잘 나왔다. 김교장 선생님의 한어린 노래 “38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며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은 교토산교(京都産業)대학으로 장소를 바꿔 세미나가 이어졌다.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이 대학은 공기가 아주 맑았다.

오전에는 “서예동원론과 보유론”, “의료기술의 역사적 기여”, “한국과 일본의 진화론 수용과정 비교”, “한국의 이슬람 문화”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재미있게 들은 것은 전상운 선생님이 발표한 “한국의 이슬람 문화”였을 뿐 나머지 논문들은 심한 언어 고문(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고통)에 시달렸다.

오후에는 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주제는 “과학사연구에서 정보처리와 이용—한국과 일본 사이”란 주제로 일본인학자 후루카와(古川)와 김영식 교수의 기본 발제가 있었다. 여기서 양국간의 과학사적인 많은 문제들이 자유로이 토론되었다.

그동안 한일과학사세미나는 1982년 서울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83년 교토에서, 세 번째는 1986년 다시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번이 네번째로 교토에서 다시 연 것이다. 그런데 이날 진지한 토론 결과 한국과 일본이라는 좁은 영역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북한 및 월남 등까지 포함한 동아시아과학사세미나로 확대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기에 결국 이번 세미나가 한일과학사세미나로서는 마지막 행사가 되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토론은 끝이 났다. 저녁 만찬은 요즘 TV 드라마로 방영중이어서 그다지 낯설지 않은 재일교포사업가가 경영하는 MK 회사에서 있었다. 작은 버스 하나를 제공하여 여러번 나누어 타고 MK 회관에 도착한 우리 일행들은 가장 반가운 음식을 보았다. 다름아닌 김치와 파전 등 우리 토속적인 음식들이었다.

회식이 시작되기 전에 전무인 유태식(일본이름: 靑木秀雄)씨가 인사말을 대신해서 MK 회사에 대해 지리할 정도로 길게 설명했다. 1960년대 10대의 택시로 시작한 이 회사는, 손님에게 네가지 인사 꼭하기, 신체 이상자 먼저 태우기 등으로 서비스를 개선했고, 운전수 자제들의 교육문제, 주택문제 등을 해결했고 아울러 완전 봉급제를 실시하여 현재 일본 최고의 운수회사가 되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음식을 앞에 두고 긴소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느낀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하듯 “이제 그만합시다”는 후지모토 교수의 말은 일품이었다.

회식이 시작되자 역시 김치가 가장 먼저 바닥이 났다. 오래간만에 우리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일본인 학자들과 필담반 영어반 일어반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식이 끝나자 역시 일본 기

업가답게 귀가길의 차량은 배려하지 않았다. 자기네 회사 택시를 이용해서 각자 마음대로 귀가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우리와 너무 달랐다.

다음날 아침도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교토 교외에 있는 나라(奈良)지방의 아스카(飛鳥) 유적을 답사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자와 우리 일행은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여행을 떠났다. 버스 안내양은 40살 정도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취업인구가 고령화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녀는 아주 친절했다. 교토에는 미인이 많고 절이 많다고 한다. 약 1600개의 절이 있다니 상당한 숫자다. 교토의 미인을 교온나(京女)라 하는데 이것을 주제로 한 민요를 그녀는 한 곡 불렀다. 가락은 우리 민요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았다. 교토 교외엔 많은 차(茶)밭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띈 것은 자그마한 치과건물 2층 옥상에 설치한 천체 망원경 돔이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시설을 실제로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해 보면서 잠시 눈을 부쳤다.

눈을 떠 보니 이미 나라에도 도착해 있었다. 사슴공원을 지나서 다시 아스카로 향했다. 다음날(10월 13일)이 바로 이 사슴들의 뿔을 자르는 날이라 한다. 녹용 생각이 났다.

우리 버스는 나라현이 건립한 카시하라(橿原)고고학 연구소에 도착했다. 이 지방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시설이다. 일본의 유물들은 우리 유물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백제문화가 그대로 전승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료관에서 나온 다음 니자와(新澤)고분군으로 향했다. 중간지점에서 고대 천문대였다고 설명하는 유적을 쳐다보았다.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배 모양으로 조각한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고대 천문 관측소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는지 의심이 갔다.

고분군의 고분 크기는 아주 작았다. 그들은 이 고분들 중 단 한기도 도굴되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도굴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반문하고 싶었다.

이어서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카마츠(高松) 고분으로 향했다. 이 고분의 벽화에서 28수(宿)가 나왔다고 한다. 다카마츠란 소나무가 높이 솟아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가보니 대나무만 높이 솟아 있었다. 이름을 다카다케(高竹)로 바꿔야겠다고 농담을 했더니 웃었다. 다카마츠는 다시 물어 놓았고 다만 사진을 찍어 식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전시해 놓고 있었다. 그 고분 속을 실제로 들어가 본 사람은 야부우치 한 사람 뿐이라 한다. 과거의 유물들을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그 규모는 아주 작았다. 가로 1m 정도, 세로 80cm 정도, 높이 80cm 정도의 작은 석실에 4神圖와 28宿가 그려져 있을 뿐이다. 그림은 낮이 익었다.

이어 아스카 자료관에 도착했다. 너무나 촉박한 일정 때문에 대강 훑어 보고 자료집만 한권 산 다음, 옛날 영빈관이 있던 터로 발길을 돌렸다. 이곳에서 아스카 시절 백제의 사신들을 맞이했다 한다. 그 옆에는 물시계가 있었다는 장소를 복원해 놓았다. 물시계가 있었다는 근거는 「일본서기」의 기록과 이곳에서 나온 가는 구리관 뿐이라 한다. 우리들은 물시계의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히 구리관 하나만 가지고 복원까지 가능하겠는지 여부를.

이어서 아스카데라(飛鳥寺)를 관람했다. 일본 최초의 절로 백제인이 세웠다고 한다. 이곳에 대불인 청동불상이 있는데 당시 백제인의 주조기술로 세운 최고의 유물이라 한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옛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 봤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공식적인 행사는 이것으로 끝났다. 교토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실제로 일본 측을 대표하여 많은 일을 했던 교토산교대학의 야노(矢野)선생의 끝맺는 말이 있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의 만남은 아주 아쉽다. 만일 토요토미나 세계2차대전이 없었더라면 오늘 관람한 1300여년전 아스카의 문화와 같이 우호적인 한일간의 교류가 계속되지 않았겠는가? 이 행사가 보다 진실된 교류가 되었다면 좋겠고 앞으로도 되길 바란다. 이전의 비극이 없었다면 오늘 이 행사는 아주

좋은 행사였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 특히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한가지 제안을 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아쉬움을 보다 줄이기 위해 교토에 내려 가장 싼 음식점에 가서 그들의 표현인 와리칸하면서 회식을 즐기자는 것이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들은 일본인 학자들과 함께 제일동포가 경영하는 음식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일본식과 한국식 그리고 혼합된 여러 요리를 배부르도록 즐겼다. 요즘 교토에서는 한국식인 돼지고기 김치볶음이 아주 유행이라 한다. 노래도 하고 시도 교환하고, 우리측에서는 농부가와 시조도 읊었다. 재미있게 놀다가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일정은 끝이 났다.

다음날은 완전 자유시간, 몇몇 뜻이 맞는 일행과 함께 킨가쿠지(金閣寺)를 관람했다. 책방도 둘러 책도 사고, 시내 구경을 여유있게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밤은 교토시내에서 보냈다. 젊은 참석자들과 함께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도 하고, 일본인과 우리를 비교해 보았다. 우리 민족의 장점을 빨리 발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능력있는 민족이 최근에는 너무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보다 열심히 공부하기로 서로 다짐했다. 또 내년엔 북경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과학사학회에 모두 참석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원했다. 다음날 아침은 일찍 일어나 교토대학을 구경했다. 서울로 출발해야 할 바쁜 일정 때문에 그저 건물과 책방만 둘러보았다.

5박6일 동안의 짧은 학회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특히 나 자신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했다. 사실 이번 일본 방문은 이전과 상당히 달랐다. 계속 밤마다 계속해서 공짜(?)로 술을 먹을 수 있었던 점에 큰 차이가 있었고, 교통수단도 고급스럽게 택시와 버스를 주로 이용했다. 학자인 체하고 돌아다닌 것도 상당히 달랐다. 그렇기에 많은 학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 언어의 불충분함을 느끼면서, '克日'이란 '知日'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